

# 전문대학 패션 전공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혜정 · 이종숙<sup>\*†</sup>

오산대학교 패션스타일리스트과 부교수 · 성결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부교수<sup>\*†</sup>

## Impact of social support of students majoring fashion in college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behaviors preparing a further career

Hye-Jung Seok · Jong-Sook Lee<sup>\*†</sup>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ashion Stylist, Os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eauty Design, Sungkyul University<sup>\*†</sup>

(2018. 7. 18 접수; 2018. 9. 12 수정; 2019. 10. 12 채택)

###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he requirements for students in colleges majoring in fashion at two-year colleges in Seoul and Gyeonggi-do to perform behaviors in preparation for a further career more effectively by identifying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behaviors preparing a further care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escribed below.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behaviors preparing a further career, and the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a negative impact on the behaviors preparing a further career. Moreover,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behaviors preparing a further career.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social support from family members or relevant third parties is required for improving the behavior of students majoring fashion in colleges to prepare a further career. To this end, the quantity or scope of social support is not the main issue, but the meticulous approach to fit each student's need for making students recognize such social support.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in colleges to enha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y accurately identifying their abilities, values or desires.

*Key Words:* social support(사회적지지),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behaviors preparing further careers(진로준비행동)

## I. 서론

오늘날의 현대사회를 고도의 경쟁사회라고 구

정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하나는 청년실업과 관련된 문제로서, 현재 우리사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성장 동력의 하락, 일자리

<sup>†</sup>Corresponding author ; Jong-Sook Lee

Tel. +82-31-467-8390

E-mail : sugee226@hanmail.net

양극화 문제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황정원, 2016), 이로 인해 청년실업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통계청이 2017년 5월에 발표한 20대 청년들의 실업률을 보면,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1.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2012년 8.6%, 2013년 8.1%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2014년 10.2%를 기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4월 청년실업률", 2017). 근래에 들어 등장한 '헬조선'이나 '열정페이'와 같은 신조어는 작금의 청년 실업문제가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이 봉착한 또 다른 문제는 진로와 관련된 문제이다. 오늘날 진로문제는 대학생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로서 국내 대학생들의 경우에 치열한 입시경쟁과 대학서열 위주의 진학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이나 희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과를 선택하고 있다. 또한 진로에 대한 충분한 사전 탐색이나 준비과정 없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중국에는 전공 및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거나 전공과 진로의 불일치에서 오는 불안감, 취업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 등으로 인해 진로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등의 문제(김중운, 김현희, 2016)에 봉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높은 청년실업이라는 현실 속에서 진로를 선택,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송현심, 홍혜영, 2010). 특히, 대학생들의 진로 문제는 대학생 자신의 전반적인 인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이현립, 송재영, 2004), 대학생 스스로가 올바른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술적, 실무적 차원의 실제적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 흥미 등을 모두 고려하고 충분한 시간을 걸쳐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선택,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합리적인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 다시 말해서 진로준비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문대학 학생들은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해당 전공의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

습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진로를 서둘러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며(신지영 외, 2012; 문성연 외, 2016), 진로 장애를 높게 지각하거나 취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종숙, 유유정, 2016). 특히, 2-3년 안에 학업과 실습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 전문대학 특성상 제공되는 정보가 취업정보나 구인구직 안내, 취업관련 세미나 혹은 개인 상담에만 그친다는 점에서 전문대학 학생들의 진로관련 불안감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홍성순, 2012). 따라서 패션전공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진로나 취업과 관련된 현실적 차원의 정보제공이나 지식 함양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취업환경과 그로 인한 불안감 및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패션전공 전문대학 학생들이 올바르게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나 교육적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전공 전문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조사

사회적 지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Betz, 1989).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지지는 특정한 행동을 위한 동기나 실질적인 행위를 촉진(송현심, 홍혜영, 2010)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은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사회나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전반적 인식이나 행동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Lent et al., 2000)에서 사회 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진로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진로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요 과업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O'Brien, 1996; Whiston

& Keller, 2004). 실제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대학생들이 주변으로부터, 혹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높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고 보고되었다(김중운, 김현희, 2016; Lakey & Cassady, 199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나 결정과 관련하여 주어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을 의미한다(Hackett & Betz, 1981; 신정옥, 2011). 실제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대학생들이 주변으로부터, 혹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높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고 보고되었다(김중운, 김현희, 2016; Lakey & Cassady, 1990). 특히 자기효능감 자체가 사람들의 특정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이 고려되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또한 대학생들의 취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ckett & Betz, 1981; Luzzo, 1993; 김영경, 2008).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진로목표에 대한 합리적 결정 그리고 구체적 목표수립에 따른 실질적 행위를 의미한다(문성연 외, 2016). 여러 연구들은 진로준비행동도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문성연 외, 2016; 최인선, 2016)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가 곧 개인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사회적 지지 수준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진다는 것이다(송현심, 홍혜영, 2010).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이나 탐색행동 등 전반적인 진로발달(Cohen & Hoberman, 1983; Lakey & Cassady, 1990; Burk et al., 1995)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 대학생이 보다 깊이 있는 진로준비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arason et al., 1991; Blustein, 1997; 김중운, 김현희, 2016). 이외에도 여러 연구들을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제안된 바 있다(Blustein et al., 1995; Whiston & Keller,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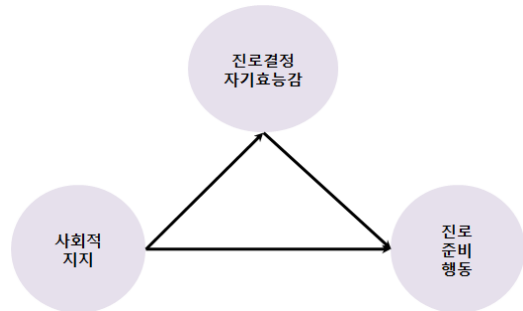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가설

연구가설 1.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2년제 전문대학의 패션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학교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약속된 시기에 연구자와 보조연구원 1인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의 객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문목적은 간략하게 설명한 후 설문에 동의하지 않는 대학생은 설문조사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학년	1학년	2학년	total
남자		25(12.5%)	22(11.0%)	48(24.0%)
여자		61(30.5%)	91(45.5%)	152(76.0%)
total		86(43.0%)	113(56.5%)	200(100.0%)

이상의 과정을 거쳐 200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200부 모두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7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 48명(24.0%), 여학생 152명(76.0%)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학년은 1학년 86명(43.0%), 2학년 113명(56.5%)으로 2학년의 비율이 높았다.

### 3. 조사도구

측정도구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12문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25문항,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18문항과 인구통계적 변수 2문항 총 5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Zimet & Farly(1998)가 개발한 다차원적지지 척도를 기반으로 김지혜(2002)가 한국적 실정에 맞게 수정, 번안하고, 엄태영 외(2011)가 활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척도는 3요인 12문항으로, 가족지지(4문항), 친구지지(4문항), 의미 있는 타인 지지(4문항)로 이루어졌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Betz et al.,(1996)이 개발한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를 이은경(2001)이 번안하고, 김보경(2012)이 활용한 단축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용하였다. 척도는 4요인 25문항으로, 목표선택 11문항, 직업정보 6문항, 문제해결 3문항, 미래계획 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김봉환(1997)이 개발하고 이명숙(2003), 강정은(2008)이 수정, 보완하여 활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척도는 18문항으로, 정보수집 6문항, 도구구비 5문항, 실천노력 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를

적용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5점 '아주 그러함'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각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기술적 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수행하였고, 적합성 검정을 위한 구조방정식모델의 추정을 위해 공변량 구조모형의 프로그램인 AMOS 21.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변인인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각각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분석(Cronbach's Alpha Coefficient)을 실시하였으며, 관찰변인들의 일변량 정규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연구개념을 다항목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연구개념의 단일차원성을 확인하기 위해 즉,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각각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 차원성이 증명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정

#### 1) 탐색적 요인분석

〈표 2〉 사회적 지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측정항목	요인1 타자지지	요인2 가족지지	공통성
일이 잘못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0.857	0.255	0.800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0.832	0.221	0.741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	0.766	0.358	0.715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	0.736	0.141	0.562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	0.720	0.415	0.690
나의 친구들은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0.694	0.384	0.630
나의 문제에 대해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0.686	0.377	0.612
나의 감정에 대해서 보살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0.642	0.320	0.514
나의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	0.271	0.846	0.788
나의 가족은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0.241	0.825	0.739
나의 가족은 기꺼이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와주려고 한다	0.274	0.799	0.713
나의 문제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0.415	0.713	0.681
고유값	4.816	3.368	
개별 설명력(%)	40.135	28.069	
누적 설명력(%)	40.135	68.203	
신뢰도계수	0.919	0.875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척도를 인용 및 응용하였으므로, 각 변인의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 요인을 찾아내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한 자료가 요인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KMO(Kaise-Mayer-Olkin) 측도(0.90 이상이면 아주 좋은 수준을 의미하고 0.60 이하이면 변수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을 의미)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각 항목들 간의 상관행렬을 확인하여, 요인분석에 사용할 측정항목들이 요인분석을 적용하는데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요인의 추출법은 주성분법(Principle Components)을 선택하였고, 요인의 회전방법은 요인을 단순화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베리맥스(Varimax)를 선택하였다. 측정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0.4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1) 사회적 지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Bartlett의 단위행렬을 점검한 결과  $\chi^2$ 값이 1629.663(df=66, Sig.=0.000)으로 나타나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였다. 또한 KMO의 표본적합도를 점검한 결과 KMO값이 0.922로 나타나 측정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공통성이 0.514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2), 두 가지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68.2%로 나타났고, 각 요인의 요인적재값이 ±0.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들 모두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재상관행렬 결과는 40.0%로 나타나 요인의 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인 1(40.1%)은 ‘일이 잘못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타자지지’로 명명하였다.

요인 2(28.1%)는 ‘나의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 나의 가족은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나의 가족은 기꺼이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와주려고 한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가족지지’로 명명하였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Bartlett의 단위행렬을 점검한 결과  $\chi^2$ 값이

〈표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항목	요인1 직업 정보	요인2 미래 계획	요인3 목표 선택	요인4 문제 해결	공통성
나는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0.742	0.253	0.208	0.012	0.658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0.671	0.030	0.329	0.229	0.612
직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나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0.666	0.113	0.264	0.297	0.614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볼 수 있다	0.652	0.225	0.014	0.239	0.533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나는 선택할 수 있다	0.649	0.193	0.440	0.061	0.656
대학원이나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0.602	0.349	0.107	-0.007	0.496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0.593	0.287	0.111	-0.059	0.450
처음 선택한 진로나 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의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0.550	0.290	0.148	0.225	0.460
향후10년 간의 직업 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0.203	0.846	-0.106	0.020	0.769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다	0.199	0.777	0.016	0.135	0.662
앞으로 5년 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0.203	0.701	0.321	0.148	0.657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0.336	0.635	0.338	0.015	0.630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0.145	0.565	0.388	0.322	0.594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0.234	0.545	0.388	0.224	0.553
진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0.350	0.493	0.032	0.113	0.484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0.251	0.035	0.827	0.075	0.754
여러 가지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0.266	0.215	0.799	0.028	0.757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0.103	0.103	0.112	0.837	0.733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0.194	0.195	0.009	0.824	0.754
고유값	3.924	3.623	2.327	1.848	
개별 설명력(%)	20.652	19.068	12.246	9.726	
누적 설명력(%)	20.652	39.719	51.966	61.692	
신뢰도계수	0.864	0.860	0.785	0.713	

1803.384(df=171, Sig.=0.000)로 나타났고, KMO의 표본적합도를 점검한 결과 KMO값이 0.895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이 0.450 이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3), 네 가지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61.7%로, 각 요인의 요인적재값이  $\pm 0.4$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들 모두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재상관행렬 결과는 42.0%로 요인의 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인 1(20.7%)은 ‘나는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직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나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직업정보’로 명명하였다.

요인 2(19.1%)는 ‘향후 10년 간의 직업 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다, 앞으로 5년 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

〈표 4〉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진로준비행동의 측정항목	요인1 도구 구비	요인2 정보 수집	요인3 계획 수립	요인4 실천 노력	공통성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보았다	0.790	0.203	0.140	0.193	0.721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0.786	-0.039	0.274	0.076	0.700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를 가지고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	0.754	-0.116	0.326	0.252	0.75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0.730	0.214	0.189	0.320	0.7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0.684	0.437	0.068	0.006	0.661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보았다	0.673	0.376	0.221	0.145	0.66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0.070	0.753	0.020	0.169	0.600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0.014	0.712	0.282	0.207	0.621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0.405	0.623	0.268	0.109	0.63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0.403	0.545	0.430	0.156	0.661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0.376	0.034	0.816	0.095	0.811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0.207	0.256	0.804	0.150	0.77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0.160	0.344	0.590	0.169	0.52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다	0.244	0.195	0.192	0.881	0.9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0.235	0.277	0.146	0.875	0.921
고유값	3.920	2.493	2.346	1.940	
개별 설명력(%)	26.136	16.619	15.639	12.933	
누적 설명력(%)	26.136	42.755	58.394	71.327	
신뢰도계수	0.891	0.776	0.776	0.921	

정할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미래계획'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12.2%)은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목표선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9.7%)는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문제해결'로 명명하였다.

### (3)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Bartlett의 단위행렬을 점검한 결과  $\chi^2$ 값이 1762.678(df=105, Sig.=0.000)로 나타났고, KMO의 표본적합도를 점검한 결과 KMO값이 0.881로, 공통성이 0.521 이상으로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4), 네 가지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71.3%로, 각 요인의 요인적재값이  $\pm 0.4$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들 모두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재상관행렬 결과는 33.0%로 요인의 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인 1(20.7%)은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 기관이나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팸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보았다,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도구구비'로 명명하였다.

요인 2(19.1%)는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

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정보수집'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12.2%)은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 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계획수립'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9.7%)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실천노력'으로 명명하였다.

### 2) 신뢰성 검증

신뢰성은 측정변수의 진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로, 측정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통해 확인한다. 본 연구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하는 크론바흐의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의 전체 신뢰도계수는 0.931, 하위요인인 타자지지와 가족지지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0.9191과 0.875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전체 신뢰도계수는 0.913,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미래계획, 목표선택, 문제해결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0.864, 0.860, 0.785, 0.713이었다.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신뢰도계수는 0.894이었고, 하위요인인 도구구비, 정보수집, 계획수립, 실천노력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0.891, 0.776, 0.776, 0.921이었다. 일반적으로 알파계수의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 3)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주어진 자료가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여 일변량정규성(univariate normality)



〈표 5〉 사회적 지지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문항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value	p
타자지지	→	사회적 지지7	1.000	0.887			
	→	사회적 지지2	0.927	0.819	0.061	15.284	0.000***
	→	사회적 지지9	0.977	0.828	0.063	15.620	0.000***
	→	사회적 지지1	0.797	0.672	0.072	11.074	0.000***
	→	사회적 지지5	0.895	0.798	0.061	14.582	0.000***
	→	사회적 지지6	0.859	0.769	0.063	13.688	0.000***
	→	사회적 지지12	0.838	0.735	0.066	12.705	0.000***
	→	사회적 지지10	0.935	0.670	0.085	11.038	0.000***
Fit Statistics : CMIN=66.743, p=0.000, CMIN/DF=3.337, RMR=0.026, SRMR=0.040, GFI=0.924, AGFI=0.863, NFI=0.937, RFI=0.912, IFI=0.955, TLI=0.937, CFI=0.955							
가족지지	→	사회적 지지4	1.000	0.872			
	→	사회적 지지3	0.896	0.822	0.066	13.481	0.000***
	→	사회적 지지11	0.859	0.756	0.071	12.074	0.000***
	→	사회적 지지8	0.947	0.748	0.080	11.900	0.000***
Fit Statistics : CMIN=6.008, p=0.000, CMIN/DF=3.004, RMR=0.017, SRMR=0.022, GFI=0.985, AGFI=0.924, NFI=0.985, RFI=0.956, IFI=0.990, TLI=0.970, CFI=0.990							

\*\*\*p(0.001)

을 검토하였다.

자료가 좌우대칭성 정도를 나타내는 왜도(Skewness)를 이용하여 연속변수에 대한 정규성이 유지되는가를 확인하며, 이때 왜도는 절대값이 3보다 크면 극단적이라고 평가한다. 단변량 왜도는 -0.869에서 0.269 사이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절대값이 3보다 작게 나타났다.

첨도(Kurtosis)를 이용하여 정규분포곡선에 대해 분포의 중간이나 꼬리에 있는 점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몰려있는지를 확인하며, 이때 첨도는 절대값이 10보다 크면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단변량 첨도는 -615에서 1.084 사이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절대값이 10보다 작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관찰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모수추정법으로 ML(Maximum likelihood;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에서 널리 사용되는 추정법인 ML은 연속변수에 대한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1) 사회적 지지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사회적 지지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타자지지 요인의 경우 CMIN/DF=3.337, RMR=0.026, SRMR=0.040, GFI=0.924, AGFI=0.863, NFI=0.937, RFI=0.912, IFI=0.955, TLI=0.937,

CFI=0.955로 나타났고, 가족지지 요인의 경우 CMIN/DF=3.004, RMR=0.017, SRMR=0.022, GFI=0.985, AGFI=0.924, NFI=0.985, RFI=0.956, IFI=0.990, TLI=0.970, CFI=0.990으로 나타나 연구단위 적합도의 척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다. 직업정보 요인의 경우 CMIN/DF=4.595, RMR=0.033, SRMR=0.051, GFI=0.938, AGFI=0.854, NFI=0.913, RFI=0.856, IFI=0.931, TLI=0.883, CFI=0.930으로 나타났고, 미래계획 요인의 경우 CMIN/DF=2.675, RMR=0.036, SRMR=0.040, GFI=0.951, AGFI=0.901, NFI=0.933, RFI=0.899, IFI=0.957, TLI=0.935, CFI=0.956으로 나타나 연구단위 적합도의 척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목표선택 요인과 문제해결 요인은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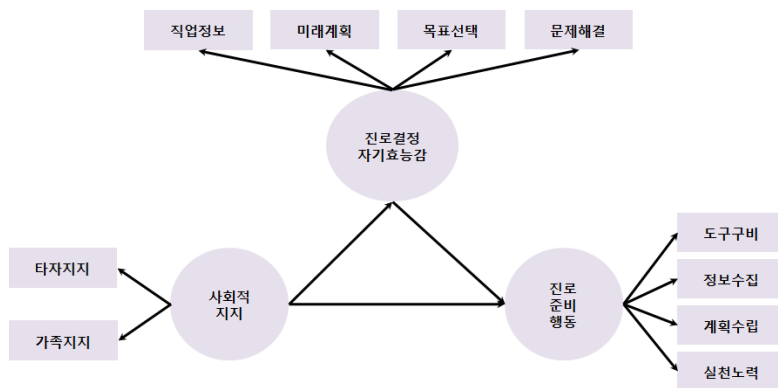
(3)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다. 도구구비 요인은 CMIN/DF=

〈표 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문항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value	p
직업정보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1	1.000	0.706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2	1.061	0.783	0.108	9.785	0.000***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4	0.942	0.706	0.105	8.946	0.000***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5	0.856	0.595	0.112	7.621	0.000***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0	1.034	0.772	0.107	9.678	0.000***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3	—	—	—	—	—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9	—	—	—	—	—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5	0.807	0.627	0.101	8.008	0.000***
Fit Statistics : CMIN=41,354, p=0.000, CMIN/DF=4.595, RMR=0.033, SRMR=0.051, GFI=0.938, AGFI=0.854, NFI=0.913, RFI=0.856, IFI=0.931, TLI=0.883, CFI=0.930							
미래계획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0	1.000	0.732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2	1.122	0.728	0.116	9.654	0.000***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3	1.149	0.769	0.113	10.176	0.000***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4	0.940	0.740	0.096	9.807	0.000***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5	0.854	0.653	0.099	8.654	0.000***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1	0.835	0.657	0.096	8.708	0.000***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6	0.851	0.541	0.119	7.165	0.000***
Fit Statistics : CMIN=37,453, p=0.000, CMIN/DF=2.675, RMR=0.036, SRMR=0.040, GFI=0.951, AGFI=0.901, NFI=0.933, RFI=0.899, IFI=0.957, TLI=0.935, CFI=0.956							
목표선택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	—	—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	—			
Fit Statistics : unidentified							
문제해결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3	—	—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7	—	—			
Fit Statistics : unidentified							

\*\*\*p<0.001



〈그림 2〉 수정된 연구모형

5.180, RMR=0.056, SRMR=0.045, GFI=0.926, AGFI=0.828, NFI=0.929, RFI=0.881, IFI=0.942, TLI=0.902, CFI=0.941로 나타났고, 정보수집 요인은 CMIN/DF=

11.770, RMR=0.080, SRMR=0.075, GFI=0.944, AGFI=0.722, NFI=0.904, RFI=0.713, IFI=0.912, TLI=0.731, CFI=0.910으로 나타나 연구단위 적합

〈표 7〉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문항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value	p
도구구비	→	진로준비행동5	1.000	0.830			
	→	진로준비행동14	0.993	0.750	0.085	11.693	0.000***
	→	진로준비행동15	1.033	0.764	0.086	11.988	0.000***
	→	진로준비행동6	1.050	0.805	0.082	12.881	0.000***
	→	진로준비행동7	0.805	0.663	0.081	9.976	0.000***
	→	진로준비행동4	0.981	0.753	0.083	11.772	
Fit Statistics : CMIN=46,617, p=0.000, CMIN/DF=5,180, RMR=0.056, SRMR=0.045, GFI=0.926, AGFI=0.828, NFI=0.929, RFI=0.881, IFI=0.942, TLI=0.902, CFI=0.941							
정보수집	→	진로준비행동1	1.000	0.479			
	→	진로준비행동2	1.322	0.560	0.245	5.399	0.000***
	→	진로준비행동8	1.829	0.800	0.291	6.278	0.000***
	→	진로준비행동9	1.931	0.847	0.398	6.276	0.000***
Fit Statistics : CMIN=23,539, p=0.000, CMIN/DF=11,770, RMR=0.080, SRMR=0.075, GFI=0.944, AGFI=0.722, NFI=0.904, RFI=0.713, IFI=0.912, TLI=0.731, CFI=0.910							
계획수립	→	진로준비행동17	1.000	0.857			
	→	진로준비행동18	0.929	0.789	0.114	8.134	0.000***
	→	진로준비행동3	0.678	0.567	0.096	7.081	0.000***
Fit Statistics : unidentified							
실천노력	→	진로준비행동12	—	—	—	—	—
	→	진로준비행동13	—	—	—	—	—
Fit Statistics : unidentified							

\*\*\*p<0.001

도의 척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계획수립 요인과 실천노력 요인은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 2. 상관관계 분석

하나의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에 대한 측정이 미래 시점에 있어서의 다른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을 기준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뢰도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8〉과 같이 단일차원성이 증명된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측정오차를 줄이고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총합척도(Summated scale)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기준타당성을 만족시킨다고 판단하여 이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 3.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앞서 살펴본 지표를 기준으로, 본 연구문제에 의한 전체적인 구조모형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MIN/DF=3.008, RMR=0.031, SRMR=0.056, GFI=0.938, AGFI=0.869, NFI=0.919, RFI=0.867, IFI=0.944, TLI=0.907, CFI=0.943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에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적합도 검증결과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표 8〉 관찰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200)

연구변인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타자 지지	가족 지지	직업 정보	미래 계획	목표 선택	문제 해결	도구 구비	정보 수집	계획 수립	실천 노력
사회적 지지	타자지지	1									
	가족지지	0.680 ***	1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직업정보	0.404 ***	0.350 ***	1							
	미래계획	0.276 ***	0.234 **	0.653 ***	1						
	목표선택	0.453 ***	0.344 ***	0.553 ***	0.433 ***	1					
	문제해결	0.229 **	0.199 **	0.380 ***	0.379 ***	0.211 **	1				
진로 준비 행동	도구구비	-0.040	0.041	0.412 ***	0.480 ***	0.140 *	0.136	1			
	정보수집	0.209 **	0.258 ***	0.536 ***	0.481 ***	0.379 ***	0.258 ***	0.566 ***	1		
	계획수립	0.135	0.107	0.497 ***	0.617 ***	0.274 ***	0.220 **	0.594 ***	0.596 ***	1	
	실천노력	0.109	0.235 **	0.301 ***	0.382 ***	0.043	0.312 ***	0.507 ***	0.524 ***	0.443 ***	1

\*p&lt;0.05, \*\*p&lt;0.01, \*\*\*p&lt;0.001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beta=0.522$ ,  $t=5.480$ ,  $p<0.000$ ) 패션 전공 대학생들이 타자나 가족으로부터 높은 사회적 지지를 느낄수록 직업정보, 미래계획, 목표선택, 문제해결과 관련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요인임을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Lakey & Cassady, 1990; Gushue & Whitson, 2006; 김종운, 김현희, 2016, 이종숙, 석혜정 2016).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은 특정 행위를 위한 강력한 동기적 신념으로 작용한다는 점(Lent et al., 2000; 송현심, 홍혜영, 2010)에서 사회적 지지가 전문대학 패션전공 학생들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효과적으로 높이는데 중요하다

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들이 긍정적 자원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 때, 진로 관련 목표선택이나 직업정보, 미래계획 등과 관련된 자신감, 다시 말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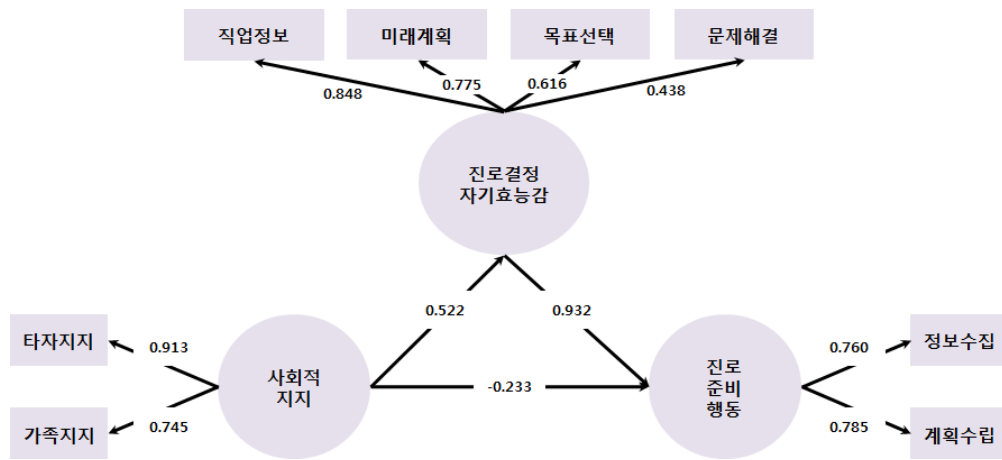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준비 행동에 대해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beta=-0.233$ ,  $t=-2.267$ ,  $p<0.05$ ) 패션 전공 대학생들이 타자나 가족으로부터 높은 사회적 지지를 느낄수록 정보수집, 계획수립과 관련된 진로준비행동은 낮아졌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진 연구(조명실, 2007; 이종숙, 석혜정, 2016)와 가족이나 친구,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Sarason et al., 1991; Burk et al., 1995; Blustein, 1997; 박재은 외, 2011; 한주원, 2013; 김종운, 김현희, 2016). 다만,

〈표 9〉 추정된 경로계수와 적합도 검정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사회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459	0.522	0.084	5.480	0.000***
사회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0.244	-0.233	0.099	-2.467	0.0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1.111	0.932	0.138	8.025	0.000***
사회적 지지	→	타자지지	1.000	0.913			
사회적 지지	→	가족지지	0.929	0.745	0.135	6.890	0.0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직업정보	1.000	0.84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미래계획	1.041	0.775	0.090	11.601	0.0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목표선택	0.910	0.616	0.103	8.848	0.0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문제해결	0.624	0.438	0.104	6.014	0.000***
진로준비행동	→	도구구비	—	—	—	—	—
진로준비행동	→	정보수집	1.000	0.760			
진로준비행동	→	계획수립	1.088	0.785	0.120	9.034	0.000***
진로준비행동	→	실천노력	—	—	—	—	—

Fit Statistics : CMIN=51.141, p=0.000, CMIN/DF=3.008, RMR=0.031,  
 SRMR=0.056, GFI=0.938, AGFI=0.869, NFI=0.919,  
 RFI=0.867, IFI=0.944, TLI=0.907, CFI=0.943

\*p<0.05, \*\*\*p<0.001



〈그림 3〉 적합도 검정 결과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규명한 일부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이 형성되지 않았고(고태용, 2008),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형성한다(송현심, 홍혜영, 2010). 이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의 청년 실업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청년실업은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

로 많은 대학생들이 청년 실업문제로 인해 진로 선택에 커다란 어려움과 불안감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학생들 스스로가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와 그에 따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압박감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정도나 수준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에

서 중요한 것은 주변으로부터 존재하는 사회적 지지의 양(quantity)이나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실질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나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Sarason et al., 1983; Wethington & Kessler, 1986)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beta=.932$ ,  $t=8.025$ ,  $p<.001$ ) 패션 전공 대학생들이 직업정보, 미래계획, 목표선택, 문제해결과 관련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정보수집, 계획수립과 관련된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준비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조명실, 2007; 진현정, 2011; 황현정, 2015; 김중운, 김현희, 201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은 자신을 보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Lakey & Cassady, 1990),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력이 높고, 효과적인 대안 선별을 통해 높은 실천력을 이끌어낸다(황지영, 2015).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같이 개인의 특성이나 내재적 요소는 특정 행위를 위한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위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문성연 외, 2016; 최인선, 2016). 결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전문대학 패션전공 학생들에 대한 진로준비 관련 자신감이나 신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년제 전문대학의 패션 관련 학과패션전공 전문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패션전공 전문대학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패션 전공 대학생들이 타자나 가족으로부터 높은 사회적 지지를 느낄수록 직업정보, 미래계획, 목표선택, 문제해결과 관련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패션 전공 대학생들이 타자나 가족으로부터 높은 사회적 지지를 느낄수록 정보수집, 계획수립과 관련된 진로준비행동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쳐 패션 전공 대학생들이 직업정보, 미래계획, 목표선택, 문제해결과 관련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정보수집, 계획수립과 관련된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전문대학 패션 전공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데, 그 양이나 규모가 아니라 실제로 대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지각할 수 있도록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욕구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2

## 참고문헌

강정은. (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태용. (2008).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보경.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경. (2008).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0(4), 1191-1210.
- 김중운, 김현희. (2016). 전문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2), 741-766.
- 김지혜. (2002). 미혼모를 위한 생태체계적 지지집단 개입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성연, 박영진, 이봉근. (2016).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스포츠학회지, 14(4), 719-730.
- 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 청소년기 애착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3), 93-116.
- 방준호. 4월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고용률도 하락. (2017. 5. 11). 한겨레. 자료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4287.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4287.html)
- 송현심, 홍혜영. (2010).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정욱. (2011).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교육연구, 19(2), 109-141.
- 신지영, 박성실, 형정은. (2012).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1), 19-35.
- 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3), 197-222.
-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 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준비행동 간의 관계 분석.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숙, 석혜정. (2016) 뷰티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대한미용학회지, 12(4), 357-366.
- 이종숙, 유유정. (2016). 뷰티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애와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대한미용학회지, 12(3), 285-290.
- 이현림, 송재영. (200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2), 393-407.
- 조명실. (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연, 문미란. (2006). 성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8(4), 731-748.
- 진현정. (2011).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인선. (2016).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주원. (2013).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서학논총, 22(2), 117-140.
- 홍성순. (2012). 패션전공 대학생의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기권 2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16(5), 39-56.
- 황정원. (2016. 7. 25). 통계로 본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현황. 교육통계연구센터. 자료출처 <https://kess.kedi.re.kr/post/6655636?>

- 황지영. (2015).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rbara, M. F., & Darrell, A. L. (1998). Increasing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nontradition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 35-43.
- Betz, N. E., & Hackett, G. (1986).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career choice behavior. *J Soc Clin Psychol, 4*, 279-289.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lustein, D. L. (1997).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260-274.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P.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16-432.
- Burk, R. J., Bristor, J. M., & Rothstein, M. G. (1995). The role of interpersonal networks in women's and men's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Gushue, G. V., & Whitson, M. L. (1996). The relationship among support ethnic ident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 Afr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Applying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2), 112-124.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Lakey, B., & Cassady, P. B. (1990). Cognitive process in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337-343.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0), 36-49.
- Luzzo, D. A.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undergraduates' locus of control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4*, 227-228.
- O'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1), 257-274.
- Sarason, I. G., Levine, H. M., Bashism, R. B., & Sarason, B. R.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27-139.
- Sarason, J. P., Pierce, C. R., Shearin, E. N., Sarason, I. G., & Waltz, J. A. (1991). Perceives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73-287.
- Wethington, E. M., & Kessler, R. C.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78-89.
- Whiston, S. C., & Keller, B. K. (2004). The influences of the family of origin on career development: A review and analysi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4), 493-568.
- Zimet, S. G., & Farly, G. K. (199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41.